프랭크 게리의 악세사리 디자인에 나타나는 건축디자인 특성

오현수*, 이희원*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e-mail: odeng5959@nate.com

Frank Gehry's Jewely Design Reflecting Architectural Design Characteristics

Hyen-Soo Oh*, Heewon Lee*
*Department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는 해체주의로 일컬어지는 전통적 디자인의 원론적 틀에서 벗어나 보이는 프랭크 게리의 건축작품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형태 구성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건축물의 형태 디자인 요소와 티파니 주얼리에서 그가 선보였던 게리 에디션을 통해 그의 주얼리 디자인에 반영된 건축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디자인 특성을 건축 이외의 디자인 분야에 표현한 게리를 통하여, 건축가의 디자인이 건축 이외의 많은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서론

1.1. 연구목적

일반적인 디자인의 원칙적인 틀에서 벗어나 보이는 프랭크 게리(Frank Gehry, 1929)의 건축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형태구성에서 나타나는 형태론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건축 디자인 특성과 게리가 디자인 한 주얼리 디자인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체주의 건축으로 분류되는 게리의 건축디자인 특성을 그가 영향 받은 배경 및 기타 사회적 관계들을 살펴보고, 악세사리 작품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여 건축가로서 게리와 디자이너로서의 게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프랭크 게리의 건축적인 작업과 악세사리의 작업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살펴보는 건축작품과 악세사리로는 세계적인 악세사리 디자인으로 유명한 티파니의 게리 에디션을 참조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건축작품으로는 게리 에디션의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건축작품으로 다음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물고기 레스토랑(Fishdance Restaurant, 일본 고베, 1986-1989), 노이에 졸호프(Der Neue Zollhof, 독일 뒤셀도르프, 1997-1999), 레이 앤 마리아 스테이터 센터(Ray and Maria Stata Center, 미국 보스턴, 1998-2003) 이상 3개 작품은 악세사리 디자인과의 관계가 높은 건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해체주의 건축

2.1 해체주의 디자인 개념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의미와 기호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의미'란 주관에서 가져온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다. 기존의 구조나 기호의 개념은 의미의 중심이 현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데리다는 이것을 하나의 환상이며 대체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외부로부터 파괴가 아닌,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추구하는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구조'나 '총체성' 등에 대한 저항이며, 불안정과 무질서를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것으로, 더 이상 중심의 추구가 아닌, 중심의 부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해체이론의 가치 및 의의는 삼각형이나 원으로 상징되는 안정과 정지의 상태를 추구하던 기존 형이상학의 토대를 해체하고 열린 다각형의 상태를 지향했다는 태도에 있게 된다.[1]

2.2 해체주의와 건축물의 성격

해체주의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구조주의에서의 구조는 언제나 하나의 중심, 고정된 원리, 의미의 위계질서와 확고한 토대를 가정하는데, 해체주의-탈구조주의-는 혼란스러웠던 1966년의 프랑스에서 사 회참여에 좌절한 실천적 사회주의학자들이 사회변혁의 한 방법으로서 언어연구를 통한 그들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현실에 대한 회의'가 인간사상의 기초형식인 언어를 회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애매모호한 언어를 해체하게 되었다.

해체주의는 고전적 구조주의가 즐겨 사용하던 '이원적 대립관계들이 이데올로기의 특유한 사유방식' 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허용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아와 비자아, 진리와 허위, 의미와 무의미, 이성과 광기, 주변과 중심, 표면과 심층 사이에 엄격한 경계를 긋는다.

해체주의건축이 다른 건축운동과 구별되는 점은 철저하게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해체주의 건축은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는 운동이며 그 중에서 데리다의 해체이론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비판적, 해체적 성격을 갖게 된다. 해체주의 건축의 디자인 작업은 포스트 모던의 한 특성인 해체적 사고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디자인 개념, 또는 방법에서 다른 건축운동과 뚜렷이 구분되며, 형태표현 방법이나 결과로서의 형태는 그러한 개념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경향은 동시대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아직 형성과정에 있기에 개념이 애매성을 가지며, 내부에 많은 모순을 담고 있다. 결국 해체주의 건축은 '포스트 모던적 사고'로 인해 가능성을 지니는 동시에 한계를 갖게 된다.[2]

3. 프랭크 게리의 건축 디자인 특성

3.1 프랭크 게리 건축물

초기 게리에게 영향을 준 건축가들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활약한 모더니스트들인 레이플 소라아노, 리처드 뉴트라, 하웰 해리스 등이었다. 게리가 켈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하던 1950년대에 이 세 건축가들은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재와 형태를 자유롭게 다루는 게리의 철학은 에드워드 모지스, 로버트 어윈, 빌리 앨 벵스턴, 척 아놀디, 래리 벨, 에드워드 루샤 등 예술가 그룹과 어울리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예술가들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자연 환경에만 집착한 것은 아니고, LA의 대중적 취향도 작품 속에 자주 도입했다. 이러한 경향은 게리의 건축 작품에도 발견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LA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의식하고 또 다양한 환경에 접함으로써, 게리의 지평은 더욱 넓어졌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리처드 세라, 클래스 올덴버그 등과 교우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었고 그의 사무실 벽에는 대가들의 작품을 소개한 잡지와 엽서들이 많이 붙었다. 이러한 예술작품은 게리에게 영감을 주었고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의 건축에 영향을 주고있다.[3]

3.2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

(1)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Guggenheim Museum Bilbao, 스페인 빌바오, 1991-1997)

도시의 역사적이고 상업적인 지구와 직접 연결되는 이 미술관은 뮤제오 드 벨라 아르떼, 유니버서티, 올드 타운 홀이 이루는 문화 삼각지대의 중심이 된다. 19세기 센츄리 시티 센터와 동쪽에 있는 외곽지역을 연결해 주는 브릿지는 이 미술관의 대지를 지나며, 일종의 도시 관문 역할을 한다. 세개층에서 갤러리와 연결되는 중앙 아트리움 주변에는 미술관 주출입구를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곡선형 브릿지, 유리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이 있다.

[그림 1] 구겐하임빌바오미술관

금속성 꽃을 연상시키는 조형적 지붕은 유리 지붕창을 통해 유입된 빛이 가득한 중앙 아트리움에서 솟아있다. 이 조각적인 형상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 건물들을 하나의 건축적 구성물로 통합시킨다. 중앙 아트리움이 앞에 있는 강 위로 50M높이의 유례없는 스케일로 솟아난 것은 기념비적인 대지의 특별한 설치와 미술관 이벤트를 가능하게 한다. 이 미술관은 물고기 비늘 모양의 곡선미 넘치는 티타늄 벽과 각진 석회암 블록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표현주의 모던 스타일의 건축물.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각품 같다. 유리벽은 작품을 열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자연 채광을 가능케 했으며 벽에 입힌 두께 0.5㎜의 티타늄 패널은 건물의 내구

성을 1백년 이상으로 확장시켰다.

(2) 물고기 레스토랑 (Fishdance Reataurant, 일본 고베, 1986-1989)

고베의 메리켄 파크에 위치한 물고기 레스토랑은 중2층의 레스토랑 및 바, 간이식당과 미술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987년 고베 개항 120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21m의 물고기 형태 오브제와 똬리를 튼 형태를 추상화 시킨 사다리꼴 형태의 평면을 지녔다.

이 비정형 형태의 공간은 규격화되고 형식화된 삶과 공간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예기치 않은 공간을 제공한다. 규격화된 공간을 해체함으로써 형식화된 삶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물고기 형태의 오브제는 레스토랑의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화적인 텍스트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구조를 예술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그림 2] 물고기 레스토랑

(3) 노이에 졸호프 (Der Neue Zollhof, 독일 뒤셀도르프, 1997-1999)

세 건물은 모두 콘크리트 플랫-슬라브로 시공되었으며 외부 파사드에 개구들이 뚫려 있다. 각 건물마다 마감 재료가 독특하다. 중앙의 건물은 완전히 금속판으로 덮여 있다. 동쪽의 가장 높은 타워는 회반죽으로 마감된 곡선 볼륨들로 구성되며, 서쪽 타워는 벽돌로 덮은 볼륨들로 구성된다.

[그림 3] 노이에 졸호프

모든 건물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이 있으며, 창문의 배치나 창문과 외피의 관계는 세 건물 모두 유사하다. 볼륨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 강가를 바라보는 전망을 가진 사무실 수가 극대화되었다.

(4)레이 앤 마리아 스테이터 센터 (Ray and Maria Stata Center, 미국 보스턴, 1998-2003)

MIT의 빌딩32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이 건물은 방사능 연구소가 있던 빌딩20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 이 건물은 컴퓨터 공학과 인공지능 연구소, 정보와 결정체계 연구소, 그리고 언어철학과가 사용하고 있다.

건물의 외피를 분해하여 접고, 찢고, 구부리고, 주름지게 하였다. 건물의 외장은 벽돌, 채색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이고, 벽돌의 사용이 친근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특히 벽돌을 많이 사용하였다. 조각 같은 빌딩들이 단지내에 분산되어 있다.[4]

[그림 4] 레이 앤 마리아 스테이터 센터

4. 프랭크 게리의 악세사리 디자인

4.1 티파니 주얼리와 프랭크 게리

프랭크 게리는 2007년도에 미국의 주얼리 메이커로 유명한 티파니와 함께 프랭크 게리만의 디자인으로 악세사리 컬랙션을 만들었다. 게리는 주얼리디자인을 CATIA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CATIA는 자동차 설계 혹은 비행기 설계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인데 비정형 건축물 설계에도 많이쓰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 DDP라 불리고있는 동대문 디자인 파크의 설계자인 자하 하디드(Zaha Hadid, 1950)가 애용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하다.

건축가가 의자나 가구는 많이 디자인 했지만 프랭크 게리처럼 악세사리에 디자인하는 건축가는 최초이며 2010년에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자하디드가 유기적인 디자인으로 만든 것이 확인 되었다.

4.2 티파니 게리 컬랙션과 작품

(1) Fish

프랭크 게리가 어렸을 때 부터 좋아했다던 물고기를 형상화 시킨 목걸이로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양을 단순화 시켰다. 소재는 티타늄 나무 등 천연소재로 제작을 하였으며 이는 프랑크 게리의 쉽게 접할수

있는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림 5] 티파니주얼리 Fish와 물고기 레스토랑
<자료 : 티파니 주얼리 컬렉션>

(2) Torque

토크는 중심에서 벗어난듯한 사각의 형태와 부드러운 곡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큰 특징으로 금과 나무재질로 사용하고 광택과 느낌을 살렸다. 이 작품과 흡사(유사)한 작품으로는 '노이에 졸호프'를 예로들 수 있으며 건축작품에 대한 형상을 끌어올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보이고 있다.

[그림 6] 티파니주얼리 Torque와 노이에 졸호프
<자료 : 티파니 주얼리 컬렉션>

(3) Fold

폴드 라인은 프랭크 게리가 주로 사용하는 메탈재질을 구긴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레이 앤 마리아 스테이터 센터'에서 볼 수 있는 뒤틀어진 형상을 디자인에 적용시켜 감각적인 디자인을 제안했다.

[그림7] 티파니주얼리 Torque와 레이 앤 마리아 스테이터 센터
<자료 : 티파니 주얼리 컬렉션>

5. 결론

많은 건축가들은 건축 이외의 많은 것에 영향을 받기도하면서 자동차, 가구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주로 건축 이 외의 디자인 중 가구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보였것에 비하여 프랭크 게리는 여타 건축가와 다르게 가구 뿐만 아니라 악세사리 디자인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였다. 이 의미는 건축의 디자인을 다른 곳에서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사상을 건축이외의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좋은 증명이 될 것이다. 이는 건축과 악세사리를 통해 프랭크 게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하는지의 대한 의도를 작게나마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본 연구를 하면서 실제 작품을 직접 보지 못했던 점과 일반인들의 악세사리 착용에 따른 경험을 파악하여 그 유용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은 보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1] 최인환, "데리다의 해체이론의 전략과 한계", 민음사, 1988
[2] 밀드레드 프리드맨 외(이종민역), "게리- 프랭크 게리가 털어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미메시스, 2010
[3] 박정대, 김진균, "프랭크 게리의 디지털 디자인 프세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10호, 2004
[4] 윤정근 외, "서양현대건축", 기문당, 2007 p263~272
[5] 티파니 웹사이트(http://www.tiffany.com)